

해외관광시장동향

2017년 7월



담당 : 제주관광공사 연구조사센터
문의처 : 064-740-6957, yc0293@ijto.or.kr

주요 이슈

- ▶ (중국) 중국산 최첨단 고속열차 ‘푸싱호’ 운행 시작
하이난의 섬 일주 고속철, ‘3시간 경제 생활권’ 실현
- ▶ (일본) 토렌다즈, SNS를 보기만 하는 여성 대상 조사
자란, 2017년 여름 인기여행지 톱 10 발표
- ▶ (동남아·구미주) 싱가포르, 스쿠트항공 유럽 첫 노선 취항
베트남, 여름 성수기 여행시장 주도
미국, 미국행 항공편 탑승 전 검사 한층 강화
- ▶ (관광통계) 6월 제주방문 내국인관광객 수 전월 대비 감소/전년 대비 증가
중국인관광객 수 전년 대비 격감, 전월 대비 소폭 증가

I 해외관광시장 동향1)

1. 중국시장 동향

■ 중국산 최첨단 고속열차 ‘푸싱호’ 운행 시작, 내부 시설 공개

- 세계최고수준의 중국표준고속철 ‘푸싱호’, 베이징-상하이 첫 출발
- 6월 26일, 중국산 표준 동차(動車, 고속열차) ‘푸싱(復興)호’가 징후[京滬, 베이징(北京, 북경)-상하이(上海, 상해)] 노선에 정식 도입됨
- ‘푸싱호’는 중국 표준 동차로 현재 ‘CR400AF’와 ‘CR400BF’ 등 2개 기종이 출시되었음
- ‘푸싱호’는 기존의 ‘허세(和諧)호’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멋스러운 디자인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명, 편의성 등에서도 크게 발전된 열차임
- ‘푸싱호’에는 총 2,500개의 검측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실내 온도, 냉각기 온도, 브레이크 상태, 객실 환경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 가능함

<인민망, 2017.06.27.>

■ 베이징-충안신구 고속열차 운행, 80분이면 도착

- 중국철도부처, 베이징 남역-충안신구(雄安新區)

노선에 동차(動車:고속열차) 배치

- 해당 노선은 베이징 남역에서 바오딩(保定, 보정)까지 운행되는 노선임
- 동차가 배치되면서 베이징 남역에서 충안신구까지 가는 시간이 80분 정도로 단축됨
- 충안신구에서 베이징, 바오딩, 스자좡(石家莊, 석가장)까지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갈 수 있게 됨

<신화망, 2017.07.10>

■ 하이난의 섬 일주 고속철, ‘3시간 경제 생활권’ 실현

- ‘하이커우둥(海口東, 해구동)에서 하이커우둥까지 가는 열차 운행
- 열차는 먼저 연안의 하이난(海南, 해남) 서부선을 따라 345km 달려 쑤야(三亞, 삼아)에 도착하고, 다시 동부선을 따라 308km 달려 하이커우둥역까지 돌아오는 일정으로 운행됨
- 하차할 필요 없이 하이난섬을 일주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노선임
- 653km의 철도레일은 마치 은실에 구슬을 꿰어 놓은 듯하고, 하이난의 60% 이상에 달하는 시(市)와 현(縣)을 연결하고 있어 섬 전체의 ‘3시간 경제 생활권’을 실현시켰음

<인민망, 2017.06.26.>

1) 본 자료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소재하고 있는 제주관광 해외홍보사무소와 제주관광공사 조사자료를 토대로 작성됨

■ 중국계 미국 청소년들의 ‘뿌리 찾기’여행, 전통 먹거리 탐방

- ‘뿌리를 찾는 중국 여행’ 하계캠프 개최
 - 6월 27일, 2017년 해외 중국계 청소년들의 ‘뿌리를 찾는 중국 여행’ 하계캠프가 광시(廣西, 광서) 류저우(柳州, 유주)시의 한 뽕싹(螺螄粉) 생산 회사에서 실시됨
 - 미국에서 온 26명의 중국계 청소년들은 현지 전통 먹거리인 뽕싹을 맛보고, 뽕싹 제조 과정 등을 배우며 중국 음식문화에 대해 배움
 - 류저우 뽕싹은 난닝(南寧, 남녕) 라오유편(老友粉), 구이린미편(桂林米粉) 등과 광시 ‘3대 미편(米粉, 쌀국수)’으로 통하는 음식임
- <중국신문망, 2017.07.03.>

2. 일본시장 동향

■ 토렌다즈, SNS를 보기만 하는 여성 대상 조사

- 일본의 PR회사 "토렌다즈", "SNS로 발신하지 않고 정보수집만 하는 여성"을 대상 조사 실시
 -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몇 개의 SNS계정을 가지면서, 열람 빈도가 일주일에 1회 이상, 발신 빈도가 월 1회 이하의 20~30대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이런 여성을 「SNS “보는 전문”클러스터」라고 정의함
 - “보는 전문”클러스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트위터 46%, 페이스북 77%, 인스타그램 52%임
- 정보 발신을 실시하지 않는(자제하는) 이유
 - “불특정 다수가 볼지도 모르는 SNS에서 개인적인 정보를 발신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44%)가 가장 높았음
 - “발신하는 정보가 없음”(40%), “정보 발신하는 것이 귀찮음”(29%) 순으로 나타남
- SNS를 통해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행사에 참가한 경험
 - 전체의 65%가 SNS 정보를 통해 구매 혹은 참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SNS에서 정보를 얻고 바로 구입할 때의 예산액은 “여행” 2만 5225엔, “패션(옷,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 4802엔, “미용(피부 미용 의료 성형)” 4663엔임
 - 구입의 계기가 되는 기고는 “멋있는·귀여운, 재미

있는 화상”(54%)이 최다이고, 이어 “코스트 퍼포먼스가 좋은 것이나 노동 시간 단축 법 등 생활에 도움이 될 것”(50%), “사용법을 소개하는 동영상”(33%) 순으로 나타남

- 기업의 공식 계정에 대해서 “좋아요”와 마음에 드는 등록을 하는 계기
 - “멋있다고 생각한 투고”(18%)와 “재미 있다고 생각한 투고”(17%) 순으로 나타남
- 보는 전문 클러스터의 사람이 SNS에서 열람하는 정보의 종류
 - “지인이나 연예인의 근황”이 최다이고, 그 외 정보는 미디어에 따라 달라서 트위터에서는 “뉴스”(31%), 페이스북에선 “조리를 위한 정보”(28%), 인스타그램에서는 “미용 정보”(44%)이 상위를 차지함

<Travel Voice, 2017.06.15.>

■ 자란, 2017년 여름 예약상황으로 인기여행지 톱 10 발표

- 리크루트 라이프스타일, 2017년 여름 국내여행 동향 정리
 - 여행예약 사이트 “자란 net”의 여름예약현황(2017년 7월 15일 ~ 8월 31일)을 바탕으로 여행동향결과를 발표함
 - 국내 인기여행지 1위는 홋카이도로 작년과 동일하고, 2위 오키나와, 3위 도쿄, 4위 시즈오카, 5위 치바로 나타남
 - 상위권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으나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여행평균예산은 숙박여행에서는 2만엔~3만엔 미만(21.4%), 당일여행에서는 5000엔~1만엔 미만(27.4%)이 가장 많았음
 - 여행 동행자는 부부끼리의 여행 22.9%, 혼자여행 15.6%,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의 가족여행 15.4% 순으로 나타남
 - 혼자여행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고 20대와 30대에 그 경향이 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여름여행시 하고 싶은 액티비티는 1위가 별보기 야간 바이크, 2위 밤에 가는 수족관, 3위 나이트 크루즈로 나타나 야간활동에 인기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Travel Voice, 2017.06.28.>

3. 동남아·구미주 시장 동향

■ (싱가포르) 스쿠트항공 유럽 첫 노선 취항

- 아테네에 B787투입, 주4회 취항
 - 스쿠트항공이 첫 번째 장거리 유럽 노선 운항을 시작함
 - 지난 6월21일부터 싱가포르-아테네 구간 직항에 신규 취항해 스쿠트항공 최초의 유럽 목적지가 공식 론칭함
 - 스쿠트항공의 가장 최신형 기종인 B787 드림라이너로 운영되는 이번 노선은 주4회(화, 목, 토, 일요일) 취항함(비행 소요시간 11시간30분)
 - 싱가포르에서 아테네를 잇는 유일한 항공노선임
 - 스쿠트항공은 그리스 음식 중 하나인 'Moussaka'에서 영감을 받아 항공기에 'Mous-Scoot-Ka'라는 이름 붙임
 - 스쿠트항공 리릭신(Lee Lik Hsin) 사장은 "스쿠트항공은 이번 싱가포르-아테네 노선으로 동남아시아와 그리스를 잇는 유일한 항공사이자 최초의 저비용 항공사가 되었다"며 "이번 장거리 노선 운항 데뷔를 비롯해 내년에는 한 개의 장거리 노선과 네 개의 중장거리 노선을 추가할 예정이다"고 밝힘
- <여행신문, 2017.07.03.>

■ (베트남) 여름 성수기 여행시장 주도

- 올해도 베트남이 성수기 주도
 - 이미 성수기를 겨냥한 신규 취항과 증편도 속속 결정됨
 - 이스타 항공은 6월14일부터 인천-다낭에 데일리 정기편을 투입함
 - 극성수기인 7월부터 8월까지 하루 3회, 주 21회로 증편 운항하기로 결정함
 - 제주항공은 그나마 관심도가 낮았던 인천-나트랑 노선에 7월26일부터 주4회 일정으로 신규 취항한다고 발표함
 - 속속 이어진 항공사의 결정으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중 올해 성수기 최다 공급도 예상되고 있음
 - 이미 올 4월까지 베트남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는 70만 명으로, 지난해 연간 방문객 총 수(153만명)의 절반을 따라잡아 가고 있음
- <여행신문, 2017.07.03.>

■ (동남아시아) 동남아 인기 관광상품 코끼리관광 실태조사, 3000마리 흑사

- 세계동물보호(WAP), 동남아시아 코끼리 관광 실태 조사
 - 런던에 기반을 둔 동물보호단체 세계동물보호(WAP)는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 스리랑카, 인도의 코끼리관광 실태를 조사함
 - 6개국에서 관광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코끼리는 3000마리에 달함
 - 동남아시아 인기 관광상품인 코끼리트레킹 등에 이용되는 코끼리가 흑사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77%는 차마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에서 살고 있었으며, 엄격한 훈련, 부실한 식단, 치료 부족 등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WAP 야생동물 전문가 장 슈밋-부르바크 박사는 "관광객들은 코끼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혹독한 훈련을 견뎌야 하고, 평생동안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함
- 코끼리들의 73%(2198마리)는 태국에서 생활
 - 채널뉴스아시아에 따르면 태국의 관광산업이 성장하면서 관광상품으로 이용되는 코끼리도 두 배 가까이 증가함
 - 최근 수십년동안 태국에서 코끼리의 등에 올라타거나 쇼를 보는 관광객이 늘면서 관광산업도 수백만 달러 규모로 성장함
 - 나머지 코끼리는 인도(617마리), 스리랑카(166마리), 네팔(147마리), 라오스(59마리), 캄보디아(36마리)에서 살고 있음

<뉴시스, 2017.07.06>

■ (미국) 미국행 항공편 탑승 전 검사 한층 강화

- 기내 테러 방지를 위한 탑승 사전검사 강화 요청
 - 미국 정부가 미국행 항공기에 대한 사전 검사를 한층 강화할 것을 세계 항공사에 요청함
 - 존 켈리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6월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행중인 여객기를 대상으로 한 폭탄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국제선을 대상으로 승객 탑승 전에 검사를 엄격히 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세계 105개국 280개 공항에서 미국행 운항편을 운영하는 항공사 180개사가 대상이며, 하루에 약

- 2,000편, 승객 32만5,000명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 테러범이 폭발물을 객실 내에서 폭발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 이번 조치의 주요 목적으로, 승객이 기내에 반입하는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사가 강화됨
 -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3월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아프리카 지역 8개국 10개 공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편에 대해 노트북 객실 반입 금지 조치를 내림
 - 지난해 말 테러 조직이 노트북에 폭탄을 설치하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데 따른 대응책임
 - 미 당국은 이번 요청에 응하지 않는 항공사는 노트북 기내 반입 금지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함

<여행신문, 2017.07.10.>

II 해외관광업계 동향2)

1. 중화권 관광업계 동향

■ (상하이) 방한관광 금지조치 해제 불투명

- 여행사의 한국상품 홍보 및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관망상태임
- 여행사에서 비공개적으로 한국비자 신청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해당 업무 중지 지시는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상황임
- 신임 대통령 취임 후 시장 재개를 기대하는 여행사들도 재운영 계획을 연기하고 있음

■ (선양) 여유국, 방한관광 판매 중지 재통보

- 한중업계 교류내용, 한중정상회담 등에 대한 보도가 증가하면서 한중관계 완화 및 금한령 해제 시각이 늘어나고 있음
- 6월 말 선양시 여유국이 여행사에게 방한 개별비자 대행 업무 중지를 통보한 이후 여행업계의 한중관계 완화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으로 전환됨
- 6월 들어 중한관계 완화되는 추세가 보여 동북지역 4개 도시의 소수 여행사에서 방한상품을 광고하고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6월말에 선양시 여유국으로부터 통지문을 받은 이후 관련 광고를 철회하고 판매 중단으로 돌아섬

■ (대만) 방한관광 상품 판매 저조

- 올해 여름휴가 방한상품 판매율이 저조함
- 장거리상품(구미) 및 크루즈상품 판매가격과 방한상품과의 가격이 거의 비슷한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여행사뿐만 아니라 중화항공, 에바항공 등 항공권 판매율도 저조해 전체적으로 여행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태임
- 방한관광 기업 인센티브 단체관광이 감소추세에 있음

2. 일본관광업계 동향

■ (도쿄) 북한문제로 저조했던 방한상품 판매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전개

- JTB미디어: 여름철(7월, 8월) 예약률 저조, 북한 문제가 안정되고 있어 서울의 프리상품 위주로 신규예약이 회복되는 추세임
- JTB월드: 북한 문제 이후 한국 전체의 모객이 미약한 상황임, 제주-동경 신규항공 취항 후의 특매 상품 세일을 전개중임
- HIS: 6월은 주로 페어, 이바라키발 전세기 이용 상품, 해변 판촉의 3상품을 중심으로 모객을 진행함
- 토부톱투어즈: 5월 중순에 팸플릿 상품 "FEEL SIMPLE 한국"을 출시함. 서울 롯데 스페셜, 프리 플랜 서울, 서울 관광 패키지, 부산 관광 패키지, 제주 관광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판매율이 저조함
- 킨키닛폰투어리스트: 5월 대비 7월, 9월의 판매가 호조를 보임
- 클럽투어리즘: 4월의 북한 문제 이후 방한상품의 판매가 회복되는 추세였으나, 북한의 정기적인 미사일 투하에 의해 다시 둔화되고 있음
- NOE: 8월 이외의 달은 방한상품 판매가 저조함

■ (후쿠오카) 한반도 정세불안에 따른 한국상품 노출 감소

- 7월 한국방면 예약 현황은 전년대비 약 60~70% 수준에 그침. 단체예약은 북한 도발 영향으로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짐. 특히, 사원여행, 교육관련 단체의 신규예약이 없음
- 대형 미디어계열 여행사를 중심으로 썸머 바겐상 품 판매 개시
- 단체가 움직이지 않는 시기, 패키지 상품을 중심

으로 방한상품 판매함

- 주요 여행사 여름 특가상품 판매실적 전년대비 30~40% 감소하였으나, 6월말 현재, 북한 도발 관련 언론 보도 감소에 따라 판매현황은 차츰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III 제주관광통계

1. 관광객 통계

■ 제주 입도 관광객 수 월별 추이

(단위: 명, %)

구분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관광객 수	증감	일본권	중국	아시아 기타	서구 등	월계	증감
‘16년 7월	1,143,578	14.9	4,131	356,436	25,924	12,593	399,084	382.6
8월	1,116,449	0.1	4,539	393,479	21,248	15,590	434,856	103.4
9월	1,027,964	6.7	4,032	276,431	25,824	16,736	323,023	23.5
10월	1,110,276	1.3	5,751	272,842	40,123	17,514	336,230	9.6
11월	990,222	4.0	3,291	184,371	36,585	10,226	234,513	11.4
12월	952,141	5.7	2,178	165,629	44,144	9,769	221,720	21.3
‘17년 1월	1,009,092	13.9	1,948	191,620	19,462	8,953	221,983	34.3
2월	903,446	2.7	2,254	180,187	14,807	6,911	204,159	-6.6
3월	1,012,706	10.0	3,023	77,255	16,490	10,977	107,745	-54.8
4월	1,205,468	13.0	4,111	31,409	39,547	21,466	96,533	-68.1
5월	1,214,573	10.9	3,870	33,031	28,498	15,805	81,204	-76.6
6월	1,184,151	11.3	7,591	35,469	29,001	15,170	87,231	-76.9
‘17년 누계	6,530,206	10.5	22,023	547,908	153,964	57,777	803,549	-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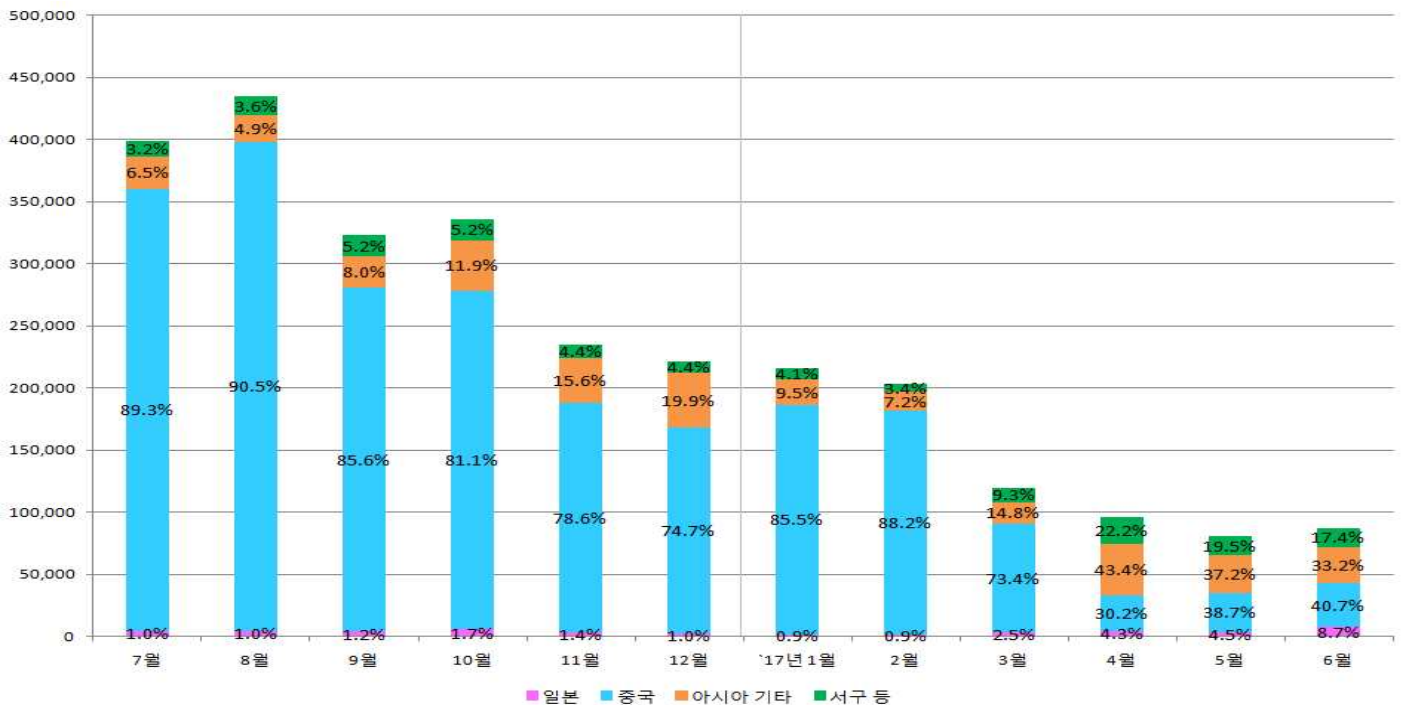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2017년 6월 기준 제주 입도 관광객 통계는 잠정치로, 추후 확정치 발표 후 일부 수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아시아 기타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국가 등 기타 아시아 국가 포함

*** 서구 등은 아시아를 제외 한 미주, 구주 등 국가 포함

****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을 제시함



- 6월 내국인 입도 관광객 수 전월 대비 감소/전년 대비 증가, 6월 외국인 입도 관광객 수 전년/전월 대비 감소
- 중국인 관광객 전년 대비 격감, 전월 대비 소폭 증가
- 외국인 관광객 중 일본인 비중 8.7%, 중국인 비중 40.7%, 아시아 기타 비중 33.2%, 서구 등 비중 17.4%

■ 전국 대비 입도 외국인관광객 수 추이(2017년 5월 기준)³⁾

		제주			한국			
		2017년	2016년	증감률	2017년	2016년	증감률	
총계		월계	81,055	346,756	-76.6	977,889	1,492,680	-34.5
		누계	716,323	1,271,421	-43.0	5,760,203	6,555,434	-12.1
아 시 아	소계	월계	65,226	335,902	-80.6	757,013	1,256,875	-39.8
		누계	652,469	1,224,472	-46.7	4,714,086	5,555,779	-15.1
	일본	월계	3,652	7,855	-53.5	159,379	178,735	-10.8
		누계	14,432	20,393	-29.2	939,499	859,723	9.3
	중국	월계	31,382	301,570	-89.6	253,359	705,844	-64.1
		누계	512,439	1,078,856	-52.5	1,997,985	3,058,222	-34.7
	홍콩	월계	4,959	3,961	25.2	51,875	52,006	-0.3
		누계	19,801	12,220	62.0	271,145	250,441	8.3
	대만	월계	2,069	2,711	-23.7	73,641	65,168	13.0
		누계	8,340	11,528	-27.7	372,809	307,743	21.1
	싱가폴	월계	3,711	2,616	41.9	18,466	17,957	2.8
		누계	18,658	12,945	44.1	81,100	72,338	12.1
	말레이시아	월계	5,659	3,475	62.8	23,898	27,926	-14.4
		누계	30,075	21,475	40.0	129,554	121,924	6.3
	인도네시아	월계	3,015	2,416	24.8	17,408	28,240	-38.4
		누계	10,461	14,449	-27.6	104,289	106,390	-2.0
	베트남	월계	2,306	1,641	40.5	25,279	18,190	39.0
		누계	8,879	11,676	-24.0	113,976	87,946	29.6
	태국	월계	4,207	5,850	-28.1	40,032	44,706	-10.5
		누계	10,464	26,249	-60.1	230,786	217,961	5.9
	기타	월계	4,266	3,807	12.1	93,676	118,103	-20.7
		누계	18,920	14,681	28.9	472,943	473,091	0.0
서 구 등	소계	월계	15,829	10,854	45.8	220,876	235,805	-6.3
		누계	63,854	46,949	36.0	1,046,117	999,655	4.6
	미국	월계	3,785	2,076	82.3	76,347	80,489	-5.1
		누계	15,621	10,102	54.6	342,253	337,091	1.5
	기타	월계	12,044	8,778	37.2	144,529	155,316	2.9
		누계	48,233	36,847	30.9	703,864	662,564	5.3

* 입도 외국인은 국내 거주 중인 외국국적의 관광객 포함

- 2017년 5월 전년 대비 외국인관광객 수 전국보다 제주 증감률 약세
 - 전국 대비 제주 강세 지역 :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등
 - 전국 대비 제주 약세 지역 : 일본, 중국, 대만, 태국 등

3) 전국 대비 외국인 관광객 증감 비교는 한국관광통계 생산 시점 상 2017년 4월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전년대비 증감률을 제시함



2. 항공통계4)

■ 제주 직항노선 월별 운영 현황

국가	취항도시	주 운항편수								
		‘16년 11월	12월	‘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중국	북경(PEK)	18	16	18	18	14	14	14	14	14
	푸둥(PVG)	94	92	92	92	92	64	64	64	64
	홍콩(HKG)	8	8	8	8	8	16	16	16	16
	광저우(CAN)	12	4	4	4	4	—	—	—	—
	구이양(KWE)	—	—	4	—	—	—	—	—	—
	대련(DLC)	8	4	4	4	4	—	—	—	—
	양주(YTY)	8	8	8	8	8	—	—	—	—
	심양(SHE)	12	12	12	12	12	8	8	8	8
	심천(SZX)	8	8	8	8	8	—	—	—	—
	정주(CGO)	4	4	4	4	4	—	—	—	—
	장춘(CGQ)	4	4	4	4	4	—	—	—	—
	창사(CSX)	6	6	6	6	10	—	—	—	—
	청두(CTU)	6	6	—	—	—	—	—	—	—
	충칭(CKG)	4	—	—	—	—	—	—	—	—
	천진(TSN)	26	30	26	26	26	—	—	—	—
	닝보(NGB)	14	18	18	18	18	—	—	—	—
	난통(NTG)	6	6	8	8	8	—	—	—	—
	난닝(NNG)	6	6	6	—	6	—	—	—	—
	난징(NKG)	12	14	14	14	14	—	—	—	—
	난창(NKG)	10	10	10	10	10	—	—	—	—
	원저우(WNZ)	—	—	—	—	—	—	—	—	—
	무한(WUH)	—	6	6	6	4	—	—	—	—
	석가장(SJW)	6	6	6	6	6	—	—	—	—
	서안(XIY)	6	6	4	4	4	—	—	—	—
	샤먼(XMN)	6	6	6	6	6	—	—	—	—
	푸조우(FOC)	6	6	6	6	—	—	—	—	—
	취엔저우(JJN)	6	6	6	6	6	—	—	—	—
	쿤밍(KMG)	—	—	—	—	—	—	—	—	—
	항저우(HGH)	38	36	36	36	36	—	—	—	—
	하얼빈(HRB)	6	6	2	2	2	—	—	—	—
소계		340	334	326	316	314	102	102	102	102
일본	동경(NRT)	6	6	6	6	6	6	6	6	6
	오사카(KIX)	8	8	8	8	8	8	8	8	22
소계		14	14	14	14	14	14	14	14	28
태국	방콕(BKK)	14	—	—	—	—	—	—	—	—
대만	타이페이(TPE)	8	—	—	—	—	4	4	8	8
필리핀	마닐라(MNL)	—	—	—	—	—	4	4	4	4
미국	사이판(SPN)	—	—	4	4	—	—	—	—	—
합계		376	348	344	334	328	122	122	126	140

4) 본 자료는 한국공항공사 정기노선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됨(전세기 등 부정기노선은 포함되지 않음), 실제운항은 항공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제주 직항노선 연도별 운영 현황

국가	취항도시	주 운항편수											
		4월			5월			6월			7월		
		‘15년	‘16년	‘17년	‘15년	‘16년	‘17년	‘15년	‘16년	‘17년	‘15년	‘16년	‘17년
중국	북경(PEK)	18	18	14	18	18	14	18	18	14	12	18	14
	푸둥(PVG)	110	100	64	92	100	64	106	100	64	96	100	64
	홍콩(HKG)	4	16	16	4	16	16	4	16	16	—	16	16
	광저우(CAN)	—	4	—	4	4	—	4	4	—	—	4	—
	구이양(CAN)	—	6	—	—	6	—	6	6	—	—	6	—
	대련(DLC)	8	4	—	8	4	—	8	4	—	—	4	—
	양주(YTY)	—	—	—	—	—	—	—	—	—	—	—	—
	심양(SHE)	4	4	8	4	4	8	4	4	8	8	4	8
	심천(SZX)	4	4	—	4	4	—	4	4	—	—	4	—
	청저우(CGO)	4	4	—	4	4	—	4	4	—	8	4	—
	장춘(CGQ)	12	8	—	12	8	—	12	8	—	—	8	—
	창사(CSX)	10	10	—	10	10	—	10	10	—	—	10	—
	청두(CTU)	—	6	—	6	6	—	6	6	—	12	6	—
	충칭(CKG)	—	12	—	—	12	—	—	12	—	—	12	—
	천진(TSN)	26	42	—	20	42	—	16	42	—	—	42	—
	닝보(NGB)	12	8	—	12	8	—	12	8	—	16	8	—
	난통(NTG)	—	—	—	—	—	—	—	—	—	—	—	—
	난닝(NNG)	6	6	—	6	6	—	6	6	—	—	6	—
	난징(NKG)	—	8	—	—	8	—	4	8	—	—	8	—
	난창(NKG)	—	—	—	—	—	—	—	—	—	—	—	—
	무한(WUH)	—	—	—	—	—	—	—	—	—	—	—	—
	석가장(SJW)	—	8	—	—	8	—	—	8	—	28	8	—
	서안(XIY)	—	6	—	6	6	—	6	6	—	6	6	—
	샤먼(XMN)	6	6	—	6	6	—	6	6	—	12	6	—
	푸조우(FOC)	6	6	—	6	6	—	6	6	—	12	6	—
	취엔저우(JJN)	—	—	—	—	—	—	—	—	—	—	—	—
	쿤밍(KMG)	—	6	—	—	6	—	—	6	—	—	6	—
	항저우(HGH)	—	28	—	18	28	—	12	28	—	—	28	—
	하얼빈(HRB)	6	6	—	6	6	—	6	6	—	12	6	—
소계		236	326	102	246	326	102	260	326	102	222	326	102
일본	동경(NRT)	8	8	6	8	8	6	8	8	6	8	8	6
	오사카(KIX)	14	6	8	14	6	8	14	6	8	14	6	22
소계		22	14	14	22	14	14	22	14	14	22	14	28
태국	방콕(BKK)	—	14	—	—	14	—	—	14	—	—	14	—
마카오	마카오	4	—	—	8	—	—	4	—	—	—	—	8
대만	타이페이(TPE)	8	8	4	8	8	4	4	8	8	—	8	4
필리핀	마닐라(MNL)	—	—	2	—	—	2	—	—	2	—	—	—
합계		270	362	122	284	362	122	290	362	122	244	362	140